

943

Made By 도윤



혜준이의 하루일기

2021.6.11

오늘은 어제 스탭 회의가 12시 30분 정도에 끝나서 피곤하게 일어났다.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7시 20분이어서 진짜 역대급으로 빠르게 준비를 하고 결국 늦어서
7시 35분쯤 나왔다. 오늘은 이름없조가 아침 식사 당번이어서 햄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음.. 이름없조 칭찬해 ^^) 그러고는 청소하고 민화 마을 가는 버스를
탔다. 가는 중에 주라기 월드를 틀어주셨는데 앞 의자에 가려서 못 봤다.
(억울.....) 민화 마을에 도착해서 도운이랑 민이랑 사진 찍으면서 구경 다녔다.
재밌는 그림이 아주 많았다. 웃긴 게 버스 기다리는데 우리 마이너스가
'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 춤을 추는데 갑자기 버스가 와서
진짜 드라마처럼 가려졌다. 더 웃긴게 정상쌤이 “ 애들아, 타 ” 해서 다 탔다. ㅋㅋㅋㅋ
(얼마나 웃겼는지 이해 못 할거예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가서 10000원으로 간식을
사라고 했는데 우리 모듬은 닭강정을 샀다.
(사실 음료수 살 돈이 모자라서... 으흠) 찢든 그리고 의림지 박물관에 갔다.
갔는데 박물관은 안가고 해먹이랑 그물망, 흔들 그네 같은것도 있길래 거기서 한참 놀았다.
거기서도 웃긴게 친구들이 탄산음료를 흔들어서 폭발했다. ㅋㅋㅋ 신기한 게
짜증 날 만도 한데 우리는 강 다같이 웃고 한솔이는 웃다가 넘어졌다. ㅋㅋㅋ 그러다가
드디어 박물관에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다. ㅋㅋㅋ 거기선 사진 찍어서 화면에
자기가 이름을 설정해놓고 같이 오르면 화면에 떴서 날라다니는 게 있는데 넘 웃겼다.
ㅋㅋㅋ. (한솔이가 내 뒤에 나왔다. ㅋㅋㅋ.) 그러다가 버스 타는 시간을 10분 늦었다.
(죄송함봐..) 그리고 빵카페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다.
(엄청 맛있음. ㅋㅋㅋ.) 그리고 학교에 와서 하루 나누기 하고 끝났다.
오늘 하루일기 끄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 오늘도 스탭회의의 있다.....) 아 !!!!! 예담이가 민트초코볼 나눠줬다.
(고마옹 ~~~~~!)



혜준이의 하루일기

2021.6.14

오늘은 풍물전수 첫날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퇴소 10분 남았을 때 옷 고르고 있고 퇴소시간 끝났을 때 고데기를 했다. ㅋㅋㅋ 학교로 가서 아침밥을 먹고 청소하고 아침 열기 하고 캠핑 조리도구 정리하고 남은 식재료도 정리했당.

그러고는 바로 풍물을 배우러 갔다. 나는 그때까지도 무슨 악기로 할지 못 정하다가 겨우 결정했다. 장구로 하긴 했는데 아주 살짝 후회가 되기도 했다.

바로 연습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장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당. ㅋㅋㅋ 기본을 배우고 휘모리 장단을 했는데 나는 초딩 3학년 때 한번 해봐서 그나마 조금 쉬웠던 것 같다. ㅋㅋㅋ 중간에 간식으로 빵 (튀기) 아 (이스크림)를 먹었는데 오늘 아이스크림은 블루베리 요거트였다. 완전 역대급으로 맛있었다.

(베스킨 라빈스 급이었음) 다시 풍물을 배우러 갔는데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다.. 겨우 참고 더 빠르게 연습하고 팽과리들 중에서 상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연습으로 3명이 돌아가기면서 상쇠 역할을 했다. 풍물을 끝내고 저녁을 먹고 그랬다.

오늘 하루일기끝!!!!!!!!!!!!!!!!!!!!!!!!!!!!!! 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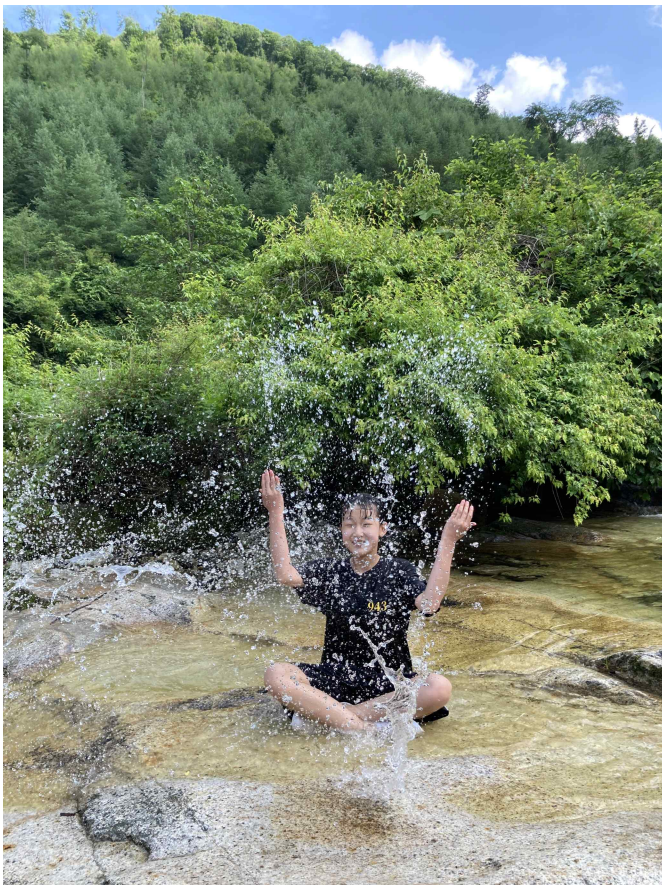
혜준이의 총평

오늘이 무빙 마지막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흩어져서 각자의 학교생활을 한다.
진짜로 무빙 안 끝내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나는 이번 1학기 무빙 기간 동안
진짜 너무 재밌기도 하면서 힘들기도 했었다. 나는 무빙이 더 학년끼리 협력하고,
더 학교에 적응하고, 그런 건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니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무빙은 힘들기는 하지만 좀 나와 같은 입장의 친구들과 함께
그 힘든 것을 견뎌보는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한 활동 중 풍물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왜냐 하면은 친구 구분 없이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힘들어하고 다 같이 즐기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우리가 악기를 쳤을 때 박자랑 음이 모두 맞는 게 너무 신기하고
뭐 그랬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도 계속 같이 하니깐
그냥 재밌었다. ㅋㅋㅋ 물론 나의 입장과 완전 똑같고, 그럴 수는 없지만
좀 더 우리 친구들이 닮아가고,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게 좋아해야 하는 건가
기분 나빠야 하는 건가.. ㅋㅋㅋ 이번 무빙 진진진진진진진짜로 재밌었고 벌써
범락쌤이랑 풍물 연습 다시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무빙이 너무 작게만 느껴진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거지 하는 마음에 허무하다.. 내가 경험해본 처음이자
마지막 1학년 무빙은 진짜 평생 안 잊어버릴 거다. 아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모두 모두 무빙 수고했엉~~~^^ (탕탕) 943 핫팅!”
ㅋㅋㅋ 오늘 일기 끝!

수영이의 하루일기

2021.6.12

오늘은 아침밥을 먹고 청소를 안 하고 바로 조끼리 일손돕기를 하러 갔다.
희정쌤 집에 일손돕기를 하러 갔는데 가기 전엔 힘들까 봐 걱정됐는데 갈 때
트럭 뒤에 타고 가서 재미있었다. 그래서 긴장이 좀 풀렸다. 그렇게 희정쌤네
집으로 갔는데 뭘 해야 되는지 들어보니 쉬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하다가 얼마 안 돼서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땀나고 짜증 나고 쉬고 싶었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하다 보니
거의 다 되었었다. 하면서 중간에 그늘에서 쉬면서 아이스크림과 쿠키와 스콘도
먹으면서 나름 재미있게 했다. 쉬고 난 다음 다시 일을 했다. 그렇게 다시
계속 하다 보니 다 되어있었다. 다 하고 나니 너무 뿌듯했다. 그 다음
다시 재미있는 트럭 뒤에 타고 빵카페를 가서 냉 쌀국수를 먹었다.
먹는데 너무 웃겨서 먹는 것에 집중을 못했다. 냉쌀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다.
그렇게 다 먹고 이제 학교로 돌아와 좀 쉬다가 기숙사에서 물놀이 할 때 입을 바지를
챙겨온 다음 바로 계곡으로 출발했다. 가는 길은 멀고 힘들었지만 가서 노니까
너무 재미있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재미있는 수영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부모님들께서 해주신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었다.
엄마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좋았다.



수영이의 하루일기

2021.6.18

오늘은 풍물연습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 풍물 발표인데 오늘 풍물을 하면서 한가지 가락을 더 배웠다. 굿거리장단을 배웠는데 박자가 너무 어렵고 헷갈렸다. 오전에는 비가 와서 강당 안에서 연습했다. 농구코트보다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할만했다. 굿거리가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외워져서 좋았다. 오후에는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밖에 나가서 농구코트에서 연습을 했다. 계속 반복하며 연습을 하고 상쇠는 대은이가 됐다. (추카포카) 범락 선생님께서는 수북, 말북을 누구로 할지 고민 중이라 하셨다. 수북이나 말북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너무 기대됐다. 최대한 잘 보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중간에 간식으로 우유 팔빙수도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초콜릿도 들어있어서 더 맛있었고 시원하고 달달해서 연습하면서 흘렸던 땀도 식고 더워도 날라가 버렸다. 다 먹고 다시 연습을 하려는데 범락 선생님께서 수북, 말북을 정하셨다고 알려주신다고 하셨다. 그렇게해서 나온 결과.... 나는 말북이 되었고 수북은 예윤이가 되었다. 말북이 되어서 넘 기뻐다. 그렇게 결정이 나고 다시 연습을 하는데 친구들이 다 지쳐서 낮이 나간 표정으로 정색을 하면서 연습하는 걸 보고 빵 터졌다. 마지막까지 꽤 재미있게 마무리 연습을 하고 풍물 마지막 연습이 끝나버렸다. 마지막이라고 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내일이 풍물 발표인데 벌써 너무 떨린다. 저녁을 도윤, 혜준, (최)유민이와 함께 범락 선생님과 함께 먹었는데 우리가 수다를 많이 떨어져서 밥먹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범락선생님께서 너무 많이 기달려주셔서 감사했고 미안했다. 내일 풍물 발표 핫팅!



수영이의 총평

움직이는 학교 마지막 날이다.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집을 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난다. 언니들이 무빙에 정말 많이 싸운다고 했는데, 심하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스탑이 많이 열렸었지만 그것마저도 재미있었다. 하루하루가 다 너무 추억이 된 거 같고 더 하고 싶다. 오늘은 풍물 발표를 했는데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됐었다. 정말 다행히 실수하지 않고 잘 끝내서 기뻐다. 부모님들께서 구워주신 고기와 수박도 너무 맛있었다. 우리가 무빙 때 구워 먹었던 고기랑은 조금 달랐다(그래도 우리가 구운 고기 마시쨌). 2주가 이렇게 짧은 적은 처음인 것 같다. 너무너무 즐거웠고 더 못해서 아쉽다.
1학년 무빙이 최고 인 듯

민이의 하루일기

202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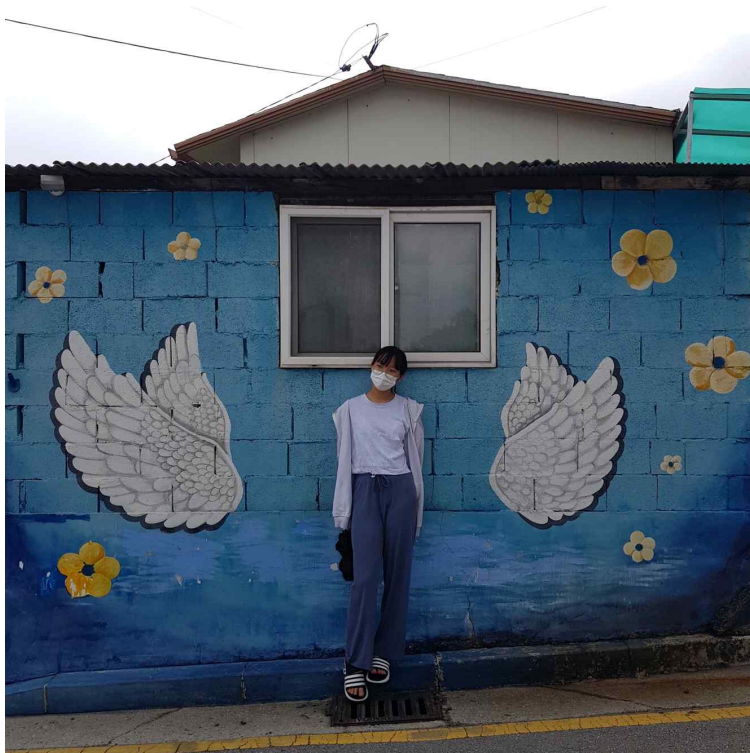
오늘은 우리 조가 아침 당번이 아니고 아점이라서 늦게까지 잤다.
그리고 학교로 내려오니 움직이조가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주었다. 진짜 맛있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드락 6길을 가려 차에 탔는데 나랑 예윤이는
서로 각자 다른 차에 타는 게 조금 그래서 예윤이를 내 무릎에 태우고
울튼샘 차에 타고 갔다. 도착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니 갑자기 햇빛이 너무 세서
힘들고 더웠다. 나는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영봉 갔다 와서 괜찮을 거라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라가기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자부심이 있던 내가 조금 부끄러워졌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 나와 예윤이, 혜준이, 도윤이,
수영이, 정수만 뒤로 뒤쳐지기 시작했다. 그 후에 나와 예윤이는 조금 속도를 내서
올라갔다. 올라가다 보니 먼저 간 애들이 계속 기다려주었다. 그렇게 예윤이와 속도를 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 다시 힘들어서 쉬다가 뒤에 있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서 뽀들까지 만난 후 다시 올라갔다. 힘들고 진짜 지칠 때쯤 정상에 도착했다.
전망대에 올라 갔다 와서 그 앞에서 김밥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
그 뒤에 학교로 다시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나는 오미자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그것도 맛있었다) 그 뒤에 쉬다가 조 별로 저녁을 만들어 먹었는데
우리 조는 소고기 미역국을 먹었다. (조금 싱거웠다)
(사실 미역도 한번 바닥에 떨어트렸다)
그 후에 우리 조가 식사 당번하고 조금 쉬니 교육시간이 돼서 6학년 교실에서
윤하샘의 사이버폭력 강의를 들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면 보람찼기도 했지만
정말 맛있었던 하루인 것 같다 ㅎㅎ



민이의 하루일기

2021.6.11

오늘 아침은 이름없조가 햄 김치볶음밥을 해줬는데 어제 스태프회의를 12시 넘어서 거의 1시까지 하는 바람에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오니 퇴소 10분밖에 안 남아서 엄청 급하게 준비했다. 그래서 결국 늦게 퇴소하고 아침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맛있었다.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주라기 월드 영화를 보며 약 1시간 정도 가서 민화 마을에 도착했다. 나는 전에도 벽화마을을 자주 갔어서 너무 신났고, 벽화(민화)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사진을 엄청 찍고 나서 두 번째로는 제천전통 시장에 갔다. 가서 간식비로 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조는 민화 마을 아이스크림 비용으로 받은 오천 원을 아꼈다가 합쳐서 닭강정(10000원)과 음료수(4500)을 샀다. 그리고 나서 점심으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 그 후에 세 번째 일정 장소인 의림지에 가서 두 번째 장소였던 제천 시장에서 간식으로 산 닭강정과 음료를 먹었다. 의림지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의림지에는 그물망도 있었고, 해먹도 있고, 흔들의자도 있었다. 박물관도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역사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조금 꺼려했는데 들어가니까 계속 체험들이 나오고 별로 지루한 설명도 없어서 너무 재미있었다. 근데 만나기로 한 시간이 지나서 중간에 나와버리는 바람에 너무 아쉬웠다. 다음에 다시 한번 꼭 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저녁은 빵카페에서 먹었는데 역시..... 너무 맛있었다.. 그럼 여기까지가 나의 하루 기록이다!! (이제 다시 스태프회의 하러 이만.....,;)



민이의 총평

오늘은 무빙 마지막 날!!

약간 아쉽기도 하면서 속 시원하기도 한 것 같다. 이번 무빙은 21학번의 첫 무빙이었는데 그만큼 설레고, 재밌고, 힘들었던 것 같다. 우리가 무빙에서 했던 제일 재미있던 활동을 하나만 뽑자면 풍물과 산악체험으로 뽑을 것 같다. 풍물은 그야말로 최고!!

일학년 무빙에서 제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악체험장은 스릴과 재미가 한 번에 있던 곳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무섭고 재밌어서도 기억에 남지만 내 생각에 나는 친구들과 함께 논다는 생각에 더 재밌었던 것 같다..! 재밌고 기억에 남는 게 많은 만큼 힘들었던 기억도 많은 것 같다.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스태프회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 진짜 애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나중에 일학년 무빙 하면 풍물 다음에 회의가 떠오를 것 같은 느낌...ㅋㅋㅋ 힘든 것도 많았고 재밌던 적도 많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나에게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지는 법을 알려주고 풍물의 재미를 알려주는 무빙이었던 것 같다. 진짜 풍물 발표를 딱 마쳤을 때의 시원섭섭한 기분이 진짜 ...좋았다!! 풍물 최고! 일학년 무빙 최고! 21학번 최고! 943 파이팅!

예운이의 하루일기

2021.6.15

오늘은 풍물 2일차!! 복채로 계속 복을 치다가 손에 물집이 잡힐 것 같당 그래도
복 재밌음 오늘 간식 최고였다 수박화채데 딸기우유 맛이 났다.

미리강표 수박화채 짱맛!! 🍷

오늘의 일기 끄읏



예운이의 하루일기

2021.6.18

드디어 무빙 마지막 날~ 약 3주 동안 힘들고 지치는 하루들이었지만 마지막에 가까워지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고 조금 아쉽기도 하다. 오늘 풍물 시간에는 범락쌤이 상쇠, 상장구, 수북, 말북을 정해 주셨다. 상쇠는 대운이가 하고 상장구는 혜준이, 말북은 수영이로 정해졌고 수북은 정말 감사하게도 나를 지목해주셨다. 쌤 감사합니다 ㅎㅎ 실수도 조금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다들 무빙 동안 고생했고 가정학습 끝나고 보자!! 정상쌤, 미리강, 올튼쌤 그리고 943 친구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쌤들 말 안 듣는 저희랑 약 3주 동안 지내시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ㅠ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9와 4분의 3반

움직이는 학교 (무빙) 수고하셨습니다

김울튼 미리강 이정상

고준형 김가온 김수영 김시준 나도울 노하종 박예다 박한솔
안 민 양예울 오재진 이대은 이정수 이 산 이승연 이유민
이혜준 최유민 최정인



예운이의 총평

음 이번 무빙은 나에게 정말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친구들과 약 2주 반 동안 학교에서만 생활하면서 진짜 즐거웠다. 사실 총평이 날아가서 다시 쓰고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느낀 점이나 무빙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17일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행복하고 기쁜 날들이었다. 무빙 기간 동안 싸우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ㅎㅎㅎ

사이좋게 지내준 21학번 수고했어!! 그리고 같이 힘 써주신

정상쌤, 미리강, 올튼쌤 수고하셨습니다~

예다의 하루일기

2021.6.12

오늘은 정말 힘들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진짜 진짜 재미있는 하루였다.

먼저 오전에는 일손돕기를 했다.

우리 조는 희정쌤 집에서 일손돕기를 했는데 가는 길에 트럭 뒤에 타고 가서 진짜 재미있었다. 그리고 진~~~짜 넓은 오디 과수원(?)에서 그물을 제거하고 이것저것 일을 했는데 날씨도 너무 덥고 벌레도 진~~~짜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중간에 간식으로 스콘과 오디 주스랑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점심으로는 빵 카페에 가서 냉 쌀국수도 먹었다. 다시 돌아올 때도 트럭을 탔고 트럭 뒤에서 다 같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소리 지르면서 정말 재미있게 왔다. 학교에서 조금 쉬다가 저수지 뒤편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 갔다. 처음엔 물이 너무 차가워서 못 들어갔는데 정상쌤이 억지로 물에 끌고 들어가서 물 폭탄을 맞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 물에서 뒹굴면서 놀았다. 조금 춥기도 하고 코로 물도 마시고 귀에 물도 들어갔지만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물놀이가 끝나자마자 기숙사로 올라가서 씻고 저녁을 먹으러 학교로 내려왔다. 저녁은 부모님들께서 토마토 스파게티와 크림스파게티, 샐러드를 준비해 주셨다. 정말 맛있었다. 오늘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올해 처음으로 신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끄읗



예다의 하루일기

2021.6.16

오늘은 아침부터 네잎 클로버를 13개나 찾아서 기분이 좋았다.
혜준이랑 수영이랑 찾았는데 내가 제일 많이 찾아서 재밌었다. 그리고 산이의 생일이어서
아침 열기 때 케이크를 먹었다. 과일 생크림 케이크와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는데
다들 먹는 것보다 서로의 얼굴에 생크림 묻히기에 더 열중했다. 그래서 아침부터 학교를
뛰어다니면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놀았다. 얼굴이랑 옷이랑 머리카락에도 다 묻었는데
서로의 얼굴이 너무 웃겨서 빵 터지고 서로 더 묻히면서 장난을 치다가 나중에 다 닦느라
풍물시간에 지각을 했다^^ 오늘 풍물은 끈으로 장구를 묶고 일어서서 쳤다.
처음엔 묶는 방법이 어려워서 장구가 자꾸 흘러내렸는데 방법을 터득하고 나니
도움 없이도 혼자 묶을 수 있었다. 다 묶고 난 뒤에는 밖에서 대형을 맞추면서
1마당 연습을 했다. 나는 상장구를 하고 싶지만 음... 어쨌든 우리가 풍물을 할 때는
해가 뜨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좋았다. 쌤 말로는 선배들 무빙 때는 더워서
말 할 힘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다.
간식으로는 햄버거와 주스를 먹었는데 버거가 정말 크고 맛있었다
예다의 하루 일기 끄으으으—으으으으—으을



예다의 총평

나의 첫 번째 1학년 무빙!!! 벌써 무빙이 끝났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난다.

학교에 우리들만 있으니 정말 편하고 또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제 원래 학교로 돌아가면 그게 더 어색할 만큼 기대해던 것 보다 훨씬 재밌고 많은 활동들을 한 것 같다.

서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번 무빙 때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서로 더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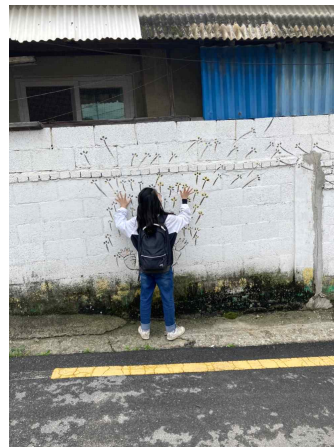
무빙을 할 때 동안은 2주가 2주가 아닌 2일처럼 정말 빨리 지나갔다.

21학번 무빙 최고!!!

도윤이의 하루일기

2021 · 6 · 11

오늘은 민화 마을, 전통시장, 의림지,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갔다.
오늘 아침은 햄 김치볶음밥이랑 주스가 나왔다. ✦ 이번 아침은 꽤 맛있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바로 민화 마을에 갔다. 민화 마을 바로 앞에 있는 제천 향교도
가보고 향교와 민화 마을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었다. 그리고 바로 민화 마을에 갔는데
벽에 동양화, 옛날 만화 캐릭터, 사람, 동물 등등 여러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바닥에도
용이 그려져 있고 그림들이 사진을 재미있게 찍을 수 있게 되어있어서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다. ♥ 근데 민화 마을이 생각보다 좀 작아서 아쉬웠다.
좀만 더 많이 그려져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래도 진짜 재밌었다.
그렇게 재밌게 놀고 제천 전통시장에 갔다. 우리가 간 시장은 내토전통시장이다.
시장을 돌고 쌤이 주신 돈으로 닭강정이랑 음료수를 샀다. 다른 것도 사려고 했지만
돈이 애매해서 못 샀다. 그렇게 시장도 둘러보고 시장에서 산 걸 들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은 짜장면을 먹었는데 식당에서 주는 물통에 얼음을 꺼내려고 물 흘리고 난리였다. ★
그리고 곧 짜장면이 나왔는데 우리 테이블은 모두 짜장면이라 아쉬웠다.

탕수육도 나와서 맛있게 먹었다. 이제 의림지를 가는데 식당 바로 앞에 의림지가 있었다. 맨 처음으론 물레방아에 올라타서 계단 걸어서 돌리는 무자위란걸 탔다. 그리고 근처에 포토존도 있고 명언 같은 것도 있고 그네, 해먹 등등 쉬고 놀 수 있는 장소였다. 시장에서 산 닭강정도 먹었다. 근데 음료수들을 흔들다가 터져서 완전 난장판이었다. ● 그리고 역사박물관도 갔는데 안에서 게임도 있고 스탬프도 있고 입장료에 비해 활동들이 많았다. 근데 우리가 구경하는 동안 버스 시간이 지나서 있다가 전화 받고 바로 뛰어갔다. 그때 진짜 식은땀 났다. ● 그리고 저녁밥은 빵카페에서 먹었다. 근데 또 스무디 홀리고 또 난장판이었다. 오늘은 진짜 체험학습 느낌 나고 딱히 힘들지도 않고 너무 재밌었다. ☺



도윤이의 하루일기

2021 · 6 · 16

오늘은 벌써 내일 풍물 연습하면 다음 날이 마지막 연습 날이고 그다음 날이 풍물 발표고 무빙 끝이란 게 실감이 안 난다. 솔직히 풍물도 무빙도 기간이 너무 짧다.
풍물은 진짜로 엇그제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틀 남았다. 신기하다. 오늘은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연습하고 판을 만들었다. 원래 밖에서 할 때 진짜 뜨겁고 햇빛도 쏘다는데 이번엔 바람도 선선하고 흐리고 날씨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어제 배운 자진모리를 계속했는데 어제는 자진모리가 계속 햇갈렸는데 오늘은 익숙해져서 이제 자진모리가 너무 편하다. ★ 오늘은 오전엔 걷는 거 배우고, 오후엔 악기별로 쌤 없이 연습했는데 솔직히 북이랑 팽과리 진짜 계속 놀고 쉬었다. 내가 장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장구는 바로 모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계속 연습했다. 막 우리끼리 돌아가면서도 쳐보고 다 같이 호흡하면서 가락 말해보고 다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박자도 우리끼리 너무 빠르면 말하고 다 같이 맞추고 장구가 최고다. ♥ 아무튼 그렇게 연습하고 쌤 오시고, 판긋이란 판을 배우고 돌았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재밌었다. 딱히 힘들지도 않고 판도는 게 진짜 진짜 재밌었다. ♡ 팽과리들이 상쇠도 돌아가면서 해봤는데 다들 판도는 건 나름 괜찮은데 상쇠 혼자 팽과리 치면서 막 노는 부분이 있는데 한 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해서 아쉬웠다. ♣ 그리고 그렇게 계속 돌다가 아직 땀땀한데 풍물 시간이 끝났다. 풍물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그리고 저녁밥은 짜장떡볶이를 먹었다. 근데 먹으면서 물 엮고 너무 시끄러워서 급식쌤께 혼났다. 아무튼 오늘은 진짜 너무 너무 재밌고 텐션 최대치였다. ✦



도윤이의 총평

무빙이란 것 자체가 아예 처음인데 뭔가 친숙한 느낌이었다. 불편한 사람 한 명도 없이 익숙하게 보낸 시간이었다. 근데 진짜 재밌었고 방구석 여행 같은 느낌이었다.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매년 무빙을 가겠지만 이번 무빙은 절대 안 잊을 것 같다. 근데 기간이 너무 짧았다. 솔직히 무빙 활동 일주일, 풍물 5일은 너무 적은 것 같다. 활동 2주, 풍물 2주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엄청 힘들 때도 있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다. 무빙 한 번 해보니까 원래 학교로 딱히 가고 싶지 않다. 계속 무빙을 하고 싶다. 내년에도 이번 무빙처럼 학교에 있고 싶을만큼 재밌었던 시간이었다. ♥

유민이의 하루일기

2021.6.5

대은이와 재진이가 지각을 하는 것을 보며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갔다.
아침을 먹고 올튼샘 차를 타고 자드락 6길에 도착했다. 걸어가면서 처음에 가는 계단을 보면서 걷는데 한숨이 나왔다. 올라가는데 뭔가 계속 길이 좁고 통로 느낌이 났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너무 가팔라서 어떻게 내려갈지 걱정이 됐다. 다 올라가서 김밥을 먹고 다시 내려갔다. 근데 가팔을까 봐 걱정했던 곳은 빠르게 지나 가졌고 걱정했던 것보다 쉬웠다. 저녁을 먹고 윤하샘과 간디학교 교육목적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들었는데 다시금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유민이의 하루일기

2021.6.16

오늘 밖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오래 걸릴 것 같고 힘들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니 꽤
잘됐다. 중간에는 악기별로 연습하는데 연습 안 하고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서 거슬렸다.
간식으로 수제 햄버거를 먹는데 선생님이 하나씩 짝어 먹어서 애들이
아이큐 200이라고 해서 웃겼었다. 간식 다 먹고 1마당을 하는데 허리끈 장구를
묶어놓은 게 풀려서 중간에 선생님이 묶어주셨다. 그리고 애들이 상쇠를 하는데
아주 재밌었다ㅋㅋ. 솔직히 쇠도 너무 하고 싶어서 쇠의 장단도 간단하게 외우고 있다.



유민이의 총평

1학년 무빙이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회의에 더 적응된 것 같고 힘들어도 참는 것을 좀 배운 것 같다. 21학번을 좀 더 알게된 것 같고 1학년이 간디에서 등지 틀기가 주제인 만큼 확실히 학교, 기숙사 생활도 배운 것이 많은 것 같다. 근데 확실히 선배들이 없으니까 허전했다ㅋㅋ 풍물은 죄를 못해서 많이 아쉽고 수장구도 못해서 매우 아쉽지만 욕심을 버리는? 법도 배운 것 같다. 확실히 나 자신을 돌아본 기회도 된 것 같았다. 무빙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매우 많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배운 것 같다. 그리고 우리 21학번의 팀워크를 키운 것 같다. 풍물도 있지만 점점 힘들어서 예민해져도 크게 싸운게 없어서 좋았던 것 같다. 선배들 말로 가장 많이 보는것은 같은 학번이니까 친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 더 이해가 갔고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무빙에서 아쉬웠던 점,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걸 극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좋았다.

시준이의 하루일기

2021.6.19

오늘 부모님이 오시고 풍물발표를 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하고
밥으로 고기를 먹었다. 이제 집간다! 빨리 집을 가고 싶다.

추가로 이번 1학년 무빙 기간 동안喜怒哀樂(희로애락)을 다 느낀 것 같다 기뻐고
화나기도 했었고 슬프기도 했었고

즐거웠기도 했었다. 등지틀기로 애들과도 친해질려 노력도 했고 풍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시원섭섭했다.



시준이의 하루일기

2021.6.18

이대는 씨가 상쇠(풍물의 마에스트로 같은 존재이자 대장:웁긴이)가 되었다.
나는 상쇠를 하기 싫었기에 안심을 했다. “휴 다행이다.” 내가 상쇠가
될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을 생각해 초조했었다.
간식으로 팔빙수, 역시나 간식은 최고다. 힘들게 몸에 열 네며 풍물을 연습한 뒤 먹는
빙수의 맛이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다. “이게 행복인가? 기분 좋아” 빙수를 먹고 나니
풍물을 하기 싫어졌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일이면 발표인데 엄마가 올려나?
집가고 싶다” 이 생각이 나며 오늘 하루도 마무리 하려
한다. 애들 말로는 오늘이 하루일기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 곧 집 가는구나...



시준이의 총평

오늘 부모님도 오시고 풍물발표를 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하고
밥으로 고기를 먹었다. 이제 집간다! 빨리 집을 가고 싶다.
추가로 이번 1학년 무빙기간 동안 희로애락을 다 느낀 것 같다. 기뻐고 화나기도 했었고
슬프기도 했었고 즐거웠기도 했었다. 등지 틀기로 애들과도 친해 질려 노력도 했고
풍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시원섭섭했다.

정수의 하루일기

2021.6.11

오늘은 제천여행을 하며 뮤비를 찍었다. 나는 어제 말했듯이 여행이라는 음악으로 찍었다.
일단 민화 마을에 가서 벽화를 구경했다. 화려하고 멋진 그림이 많았다.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제천시장으로 가서 떡볶이와 떡꼬치와 어묵을 먹었다.
그리고 식혜도 먹었다. 그리고 의림지에 가서 뮤비를 좀 많이 찍고 놀다가
박물관으로 가서 구경을 하다가 밖에 있던 놀이기구로 가지고 놀았다.
그러면서 찰도 만들고 덕산으로 가서 빵 카페에서 맛있는 것을 먹었다. 참 재미있었다.



정수의 하루일기

2021.6.16

오늘은 풍물을 걸어서까지 해봤다. 역시나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언제처럼 보람 있었다. 열심히 배우다 보니 내가 발을 다친 것도 까먹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미 아픈데 안 아픈 반대쪽 발도 아파서 못 느낀 것 같다. 이제 3일 후에 풍물 발표인데 그때까지 잘 해내기만 한다면 1학년 1학기과 무빙이 끝나는 것이다.



정수의 총평

내 인생 첫 무빙이었다. 무빙이라고 해서 막 힘들고 그럴줄 알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었다. 이것저것 못해본것도 해보고 좀 혼나기도 했지만
의미있는 무빙이었던 것 같다. 친구들 덕분에 웃고, 화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다시 친해지며 사이가 계속 나쁠순 없는 것 같다. 이쯤되니 내년 무빙이 기대가 된다.

하종이의 하루일기

2021.6.14

오늘은 처음으로 풍물을 배웠다. 처음에는 범락쌈 이미지 때문인지 쌈이 조금 무서웠지만 풍물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하종이의 하루일기

2021.6.15

오늘은 풍물에서 진모리 진오방진 동설풀이를 배웠다. 그리고 손가락이 부어서
조금 힘들었다. 아 그리고 밥하고 간식이 맛있었다. 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종이의 총평

오늘은 1학년 무빙 마지막 날이다. 이제 풍물도 끝나고 집에 갈 일만 남아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스태프도 길게 하고 안 좋은 일도 많아서 힘들었다. 그래도 무빙 덕분에 21학번이 더 친해진 것 같다. 또 주제가 간디에서 등지틀기인 것처럼 어느정도 간디에 적응도 한 것 같다. 그리고 풍물도 드디어 끝나서 기쁘다. 마지막으로 모두 고마워요 ^^

가온이의 하루일기

2021.6.14

오늘은 아침부터 개인, 모듬 식재료를 정리하고 평상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놔다.
아! 그리고 오늘은 풍물을 처음으로 하는 날이다. 그래서 평상을 치운 것 같다.
암튼 그래서 1학년 무빙 풍물 선생님, 최범락 선생님께서 오셨다. 일단 악기를 정했다.
난 북이었다. 그다음 채잡는 법, 악기 들고 앉는 법, 등등을 배웠다.
그리고 바로 휘모리 장단을 배웠다. 우린 북이여서 치는 건 쉬웠다.
그래도 팔과 발은 아팠다. 무빙가기 전에 언니, 오빠들이 풍물 힘들다고 겁을 줬는데
의외로 괜찮았다. 애들도 엄청 열심히 했다. 하지만 발이 너무 아프다...



가온이의 하루일기

2021.6.17

풍물 발표가 어느덧 2일 남았다. 그래서 오늘은
1마당(일채, 휘모리, 인사를 하고, 자진모리로 원진, 을자진, 방울진, 두줄배기,
밀당을 한다)과 2마당(동설풀이와 진오방진을 한다)을 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셈이다. 상쇠, 상 장구, 수 북, 말 북을
내일 정한다고 했다. 으아아아아아아아힘들어 죽겠다.



가온이의 총평

이번 1학년 무빙, 등지틀기에서 우리 21학번과 더 친해지고, 돈독해진 것 같다. 다른 활동들도 의미있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같은 학번끼리의 친목을 다진 것이 제일 의미있었던 것 같다. 다만 점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져서 다들 한 번씩은 꼭 빠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했는데 그러면서 더욱 돈독해졌다. 사실 난 친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공개하기 좀 그런 이유로 무빙 중간부터 멀어진 친구도 있었지만 그래도 더 친해진 친구들이 더 많았다.

유민이의 하루일기

2021.6.4

청풍문화재를 관람하며 해설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하여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밥을 먹고 와서 움직이기도, 말하기도 귀찮았습니다..
조금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저녁으로 빵카페로 가기로 결정하여
양해를 구하고 빵카페에 가서 다 같이 다양한 메뉴로 시켜 먹었습니다.
저는 매운 쌀국수를 먹었는데, 흰 옷에 자꾸 빨간 국물이 튀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



유민이의 하루일기

2021.6.11

오늘은 아침에 6시에 내려가는 것이 아닌 전날 스탭회의 때문에 밤 늦게 자서 미리강께서 조금 배려해주셨다. 배려에도 못 일어난 남자애들이 있었다. 급히 내려가 아침준비를 하고 맛있게 먹었다. 메뉴는 계란 후라이가 올려진 햄 김치볶음밥이었다. 생각보다 맛있는 것이어서 괜찮았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민화 마을에 가서 영상을 찍고 재미있게 놀았다. 그리고 시장에 이동을 해서 맛있는 간식을 포장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 나는 짬뽕을 먹었다. 맛있고 만족스러운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의림지에 가서 박물관도 구경하고 영상도 마저 찍고 돌아오는 길에 빵카페를 들러 밥을 먹고 지금 하루 일기를 쓰고 있다. 빠빠



유민이의 총평

오늘은 무빙 마지막 날이었다. 정말 기대되고 떨리던 날이었다. 이런 기분이 잘 들지 않았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무빙이 조금 더 길었더라면, 많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무빙이란, 나를 찾아가는 계기, 친구들과 더욱 서로를 친해지게 되는 계기 같다. 선배들과 불편한 생활에서 편한 친구들이랑 생활하니 자기 계발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한 것 같았다. 그리고 편하게 생활하면 자기가 실수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점을 조금 신경쓰며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 구나를 알게됐던것 같다. 무빙을 하면서 속상하기도 기쁘기도 짜증나기도 했다. 거의 다 기쁜 생활이었지만 가끔씩 소외감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래도 열심히 일정을 잡고, 풍물을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더욱 더 재미있는 무빙이고, 무빙을 더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한 것 같다.

정인의 하루일기

2021.6.11

오늘은 민화 마을, 의림지, 제천시장에 다녀왔다.

제일 첫 번째로 민화 마을에 갔었는데, 향교 앞에 있는 민화들이 각각의 개성으로 그려져 있었다. 어떤 건 정말로 민화로, 또 어떤 건 민화가 아닌 다른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벽마다 다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니 굉장히 생소했다.

그런데 그런 그림을 즐기기보다는 뮤직비디오 찍기에 열중해서 민화 자체는 잘 보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 그다음으로 제천시장에 갔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장에서도 뮤직비디오에만 집중해서 시장의 많은 부분을 즐기지 못했다.

또 오합지졸은 편의점에 갔다 왔던 것도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다. 규칙을 어기고 교육 활동의 일부분을 마음대로 빼 버린 것에 대하여 일기를 빌려서 사과하고도 싶다. 죄송합니다. 의림지에 갔을 때는 좀 달랐는데, 내부에서는 촬영을 하지 못해서 정말 체험에 집중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림지에 관련된 설화들이었는데,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의 이야기라는 걸 의식하니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 정말 바쁘고 뽀뽀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만큼 많은 걸 볼 수 있었지만 그 곳을 즐기고 느긋하게 관람할 시간은 없어서 속상했다.



정인이의 하루일기

2021.6.12

오늘은 일손돕기와 물놀이를 했다. 어제 스탭 회의를 늦게까지 해서 그런지 조금 피곤했다. 이걸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순 없지만, 진짜 많이 지쳤었다. 정말로. 어찌되었던 일손돕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반겨주셔서 감사했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오래 걸리는 일손돕기를 했는데, 오래 걸린다고 해서 지루하다기보다는 재미있었던 활동이었다. 물놀이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힘들었다. 개인적으로 물놀이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눈도 안 좋은 상태였어서 지친 상태에서 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래도 언제 또 올까 싶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놀았다. 너무 재미있었다.



정인이의 총평

무빙은 내게 가까워질 사람과 멀어질 사람을 구분해준 기간인 것 같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들 체력의 끝을 보고 예민해졌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구분한 기준은
내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걸 중요히 여겼다.
내가 남을 평가하는 것 일 수도 있고 오만하게 친구를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내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지내고 싶다. 비록 그게 이기적이고
편향적일지라도. 그래서 무빙은 내게 같이 지낼 사람과 같이 지낼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 준 중요한 시간이었다.

승연이의 하루일기

2021.6.7

오늘은 학교 캠핑을 했다. 아침으로 이름없조의 버터 간장 계란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그리고 텐트를 쳤다. 텐트 치기가 힘들었다. 텐트를 치고 밥을 했다. 김치 주먹밥을 했다. 밥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처음에는 조금 잘 됐었다가 두 번째 할 때 밥이 덜 익고 탔다.. 기름까지 넣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맛있다고 했다. 하지만 볶음 김치는 맛있었다. 그런데 남자애들이 텐트 배분 때문에 토론을 해서 우리만 요리하고 뒷정리 안 한다고 해서 조금 화가 났었지만 뒷정리를 한다고 해서 나아졌다. 밥 먹은 뒤 1시간 정도 자고 놀았다. 텐트도 괜찮았고 평상에서 놀고 칼싸움하는 것도 재밌었다. 그다음에 화로를 만들었다. 화로 만드는 돌이 무거웠다. 그리고 불을 피웠는데 불을 키우고 지속하는 게 많이 힘들었다. 나는 계속 부채질 했다. 손이 아팠다. 연기 때문에 눈이 아팠다. 불을 키울 때 다른 조 친구들이 도와줬다. 고맙다. 그리고 고기를 구웠다. 고기를 구울 때 손이 뜨거웠다. 고기는 맛있었다. 밥도 잘 되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일을 안해서 짜증났고 다른 조 친구들이 고기를 얻어먹으러 와서 짜증났다. 담력체험을 안 한다고 해서 아쉬웠지만 재밌는 하루였다.



승연이의 하루일기

2021.6.14

오늘은 첫 풍물을 하는 날이었다. 최범락 선생님이 생각보다 다르셔서 놀랐다.
나는 풍물에서 장구를 골랐다. 어떻게 잡는지를 알려주신 후 휘모리장단을 배웠다.
많이 어렵지 않았다.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하지만 너무 졸려서
다른 악기 장단 설명해 줄 때 졸았다.. 조금 하다가 간식으로 빵아를 먹었다.
아이스크림이 블루베리 요거트 맛이었는데 아주 맛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풍물을 했다.
풍물 할 때 새끼손가락이랑 허리가 많이 아팠다. 다 배운 뒤 연주해봤다.
생각보다 잘 된 것 같고 더 연습하면 공연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승연이의 총평

오늘은 무빙 마지막 날이다. 무빙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다.
무빙 중에 집에 가고 싶기도 했지만 막상 무빙이 끝나니까 뭔가 더 이상 없을 일이라는 걸
아니까 아쉽기도 하고 집 가서 좋기도 했다. 나는 이 무빙이 6년 동안 함께 지낼
943 공동체와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도 극복하고 우리끼리만의
규칙 만들기 청소 등 같이先輩들이 해주던 거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갔던 것 같다. 무빙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산악체험이고
제일 힘들었던 건 밥 짓기 고기 굽기였다. 이 무빙이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재진이의 하루일기

2021.6.5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만들었다. 오프라이스를 만들었는데 디지게 맛있었다.
나도운 키키야조보다 잘 만들었다. 끝 아님 자드락 6길을 갔다. 힘들었다.
돌아와서 찍바를 머거따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다.



재진이의 하루일기

2021.6.18

오늘도 풍물을 했다. 디질 뻔 했다.



재진이의 총평

나는 첫 무빙이여서 시작하기 전이 많이 기대했다. 무빙 하루 해보고 느낀 건데 친구들만 있으니 좋았다.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물놀이 할 때가 제일 잼있었다. 일손 돕기를 하고 와서 많이 힘들었는데 물놀이를 해서 치유 되는 느낌 이었다. 나에게 무빙이란 친구랑 더 가까워 지는 계기 인거 같다.

산이의 하루일기

2021.6.6

오늘은 덕산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왔어요.



산이의 하루일기

2021.6.7

저는 오늘 텐트를 치고 놀다가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산이의 총평

나는 무빙기간 동안 산악체험이 가장 재미있었다. 매달리는 게 무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외식으로 먹은 돈까스도 좋았다. 그런데 외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좀 이상했다. 그리고 3분 영상을 찍을 때 처음 연기했는데 좀 재미있었다. 일손돕기는 어렵고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쉬워서 재미있고 그분이 너무 좋아해서 기분이 좋았다. 무빙은 1학년 끼리 친해지는 느낌이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이번 무빙이 좋았다.

준형이의 하루일기

2021.6.13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11시쯤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고 폰으로 나머지 뮤비를 찍고 편집을 했다. 그리고 12시쯤에 내려와서 밥을 먹고 도서관에서 나머지 편집을 하고 물폰 책임수행인 청소를 했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도서관에서 나머지 뮤비편집을 하다 보니 4시 30분이 되어 타임캡슐을 묻고 고기를 구워먹었다. 재미있었다.



준형이의 하루일기

2021.6.7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기숙사에서 좀 쉬다가 2시 30분쯤에 내려와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맛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전산실에서 일기를 쓰고 있다.
오늘은 조금 아파서 안 좋았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재미있는 하루였다.



준형이의 총평

저는 이번무빙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많이 바뀌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이랑도 더욱 친해진 거 같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낸 거 같습니다. 풍물도 재미있었고 자드락6길 과 자연체험, 일손 돕기, 물놀이, 캠핑 등 여러가지 체험을 했는데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잘 지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애써주신 부모님들과 쌤들과 친구들이 고마웠습니다. 갱

대은이의 하루일기

2021.6.4

오늘은 나다운 키퍼야조가 아침식사를 만들어줬다.

음식은 밥버거였다 맛있었다. 특히 마요네즈의 밥과의 조합이

입에 베는 게 최고였다. 밥을 먹은 다음엔 도서관에서 아침열기를 하고 무궁화관광버스를 타고 산악체험에 갔다. 첫 번째로 탄 것은 짚라인이었다. 처음엔 좀 무서웠지만

막상타보니까 빠르게 쑹~~가는 게 재미있었다. 두 번째 마린타워를 탔다.

재밌는 코스가 스릴있었다. 세 번째로 탄 건 터널메이즈였다.

공간도 좁아서 쉬울 줄 알았는데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많이 더웠다. 네 번째로 탄 건 스카이 점프였다. 이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았다.

어땠냐면 처음에 올라갈 때 무서운 게 버틸 만은 한데 올라갈 때 줄이 걸려서 빠려는데 계속 안 빠져서 짜증나면서 무서웠다. 왜냐하면 계속 여기에만

있을 것 같은 공포감이 무서웠다. 땀 땀 별로 안 무서웠다. 마지막으로 탄 건

클라이밍이라는 암벽등반 코스다. 올라갈 때 돌멩이 같은 거를 잡고, 밟고

올라가서 종을 치고 마지막 점프해서 벽을 차면서 내려오면 끝나는 코스이다. 솔직히....

내가 제일 잘했다. (선생님한테 칭찬받음) 끝나고 식당에서 돈가스를 먹었다. 맛있었다.

버스타고 가는데 청풍문화재에서 조선시대의 한옥을 구경하고 쌤이 이공간에서 영상을 찍어오라고 했다. 그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제대로 못한 거 같았다. 영상을 다 찍고

버스를 타면 서 빵카페에 가서 쌀국수를 먹고 애들과 얘기하다가 올튼쌤의 차를 타고

하교로 와서 지금 하루 일기를 쓰고 있다.



대은이의 하루일기

2021.6.18

오늘은 무빙 마지막 날 이다. 내일부터는 풍물발표랑 PPT 발표가 있다. 오늘아침으로 모닝빵에 딸기잼, 스프와 양상추를 먹었다. 먹고 복도청소를 하는데 분리수거장 문 앞에 작은개미들이 죽은 지렁이를 먹고 있는 것이다. 정말 신기 했던 게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하수구 쪽으로 연결돼서 엄청 길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분리수거장 앞에다가 두면 청소를 할 수 없어서 빗자루로 밖으로 보냈다. 아침열기를 하고 풍물을 시작했다. 처음에 국거리 장단을 배웠는데 그때 배가 아파서 똥을 싸고 와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 다시 와서 하는 대로 따라 해서 뭐 좀 외웠다.

다음으로 1마당에서 2마당까지 한솔이부터 상쇠 역할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다. 나 까지 다하고 범락쌤이 상쇠를 정해주셨는데 내가 상쇠로 결정이 났다.

솔직히 그때 좋았지만 그만큼 걱정도 많이 왔다. ‘내가 상쇠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공연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너무나도 컸고 걱정됐다. 바로 점심을 먹고 내가 상쇠를 하면서 2마당까지 했는데 어설 틈 점이랑 틀린 게 많았다. 쌤한테 좀 혼났지만 다시 시작했는데 또 틀리고 그랬다.

그대 많이 긴장되어 있었고 머릿속이 너무 헛갈렸었다. 이때는 정말 너무 부담스러우면서 머릿속이 그냥.....아니다.....일단 연습을 끝내고 간식으로 팔빙수를 맛있게 먹은 다음(정말 맛있었다.) 또 다시 풍물연습을 했다. 그때도 많이 틀렸던 것 같다.

계속 틀릴 때마다 스트레스도 오고 힘들고 눈치도 보였다. 끝나고 쌤이 자기 전에 내가 어디가 틀렸던건지 뭐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건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나는 내일이 너무 걱정 된다. 부모님들이 오셔서 보는 무대인데 나 하나 때문에 또 내가 상쇠인데 틀리면 그 하루 내내 원망스럽고 욕먹을 까봐 또 상쇠에 자격이 없는 애로 몰릴까봐 두렵고 내일이 걱정된다. 그래도 최대한 자신감을 갖고 내일 공연 때 잘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해보겠다.

하....내일 진짜 어찌지.....



대은이의 총평

처음부터는 좀 힘들었다. 애들과는 처음엔 친했는데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친구들과 어색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했는데 막상 지내보니까 점점 친해졌다. 뭔가 후련했고 프로그램도 천천히 끝내면서 풀리니까 보람있었다. 여러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스릴있고 또 교훈있는 활동도 있고 그랬다. 무엇보다 거의 다 재밌었다. 힘든 것도 있었지만 다 끝내고 보니까 후련했고 편안해졌다.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쉴 생각에 기분이 좋다. 풍물 하기 전에 틀릴까봐 내가 상쇠의 자격이 없을까봐 겁나고 걱정됐었는데 주위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응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좀 안정되기도 하고 힘이 좀 났다. 하기 전에 연습도 좀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공연 때 쳐봤는데 안 틀리고 재밌게 한 것 같다. 끝나고 학부모님들, 친구, 선생님들이 잘했다고 또 재능있고 잘한다고 하셔서 고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 전부터 걱정 해 왔던 걸 오늘 멋있게 재밌게 잘 끝내서 좋다. 무빙 기간 동안 힘들대도 화날 때도 재밌을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만큼 만족도와 재미도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무빙을 준비해주신 쌤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쌤들 덕분에 재밌게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한솔이의 하루일기

2021.6.18

내일이면 무빙도 끝이다. 오늘은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기분이 안 좋았다.



한솔이의 하루일기

2021.6.16

오늘은 벌써 풍물 3일 차다. 어느새 적응이 돼서 풍물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내일부터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한솔이의 총평

이번 무빙은 나에게 재미있으면서도 힘든 무빙이었던 거 같다. 그래도 재미있는 추억이 많이 남았다. 가장 재밌었던건 풍물이었다. 풍물을 하면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고 다른 활동보다 열심히 하게 되는거 같다. 아쉬웠던 건 산악체험을 하지 못했던 거다. 산악을 체험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다쳐서 난 못했다. 그래도 학급반에서 한번 왔었어서 괜찮았다. 1학년 무빙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2학년 무빙도 기대된다.

고준형 김가운 김수영 김사준 나도운
노하종 박예다 박한솔 안민 양예운 오재진
이대은 이산 이승연 이유민 아청수 이혜준
최유민 최정인